

혈액암 투병 자연 스님에게 도움을

O형 혈액 급구... 치료비 1억여원 예상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자연 스님이 치료를 받고 있다.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한 비구니 스님이 도움을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2학년 재학 중인 자연 스님이 혈액암 치료에 필요한 O형 혈액을 급하게 구하고 있다.

자연 스님은 올 8월 정상적인 혈액이 생성되지 않는 '골수이형성 증후군'으로 쓰러져 현재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치료중이지만 면역력이 현저하게 약화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월경 속가의 언니에게 골수이식을 받아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지만, 아직도 혈액이 부족해 8명이 수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자연 스님을 돕고 있는 중앙승가대신문 편집장 종결 스님은 "혈액 부족도 심각하지만 전체 치료비도 1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황과 모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연락처 019-434-7044(종결 스님) 후원계좌: 농협 241033-55-000363(학교법인 승가학원)

유철주 기자

미얀마선원 연내 재개원



본사 나눔캠페인 통해 법당 임대·3천여만원 모금

"그동안 도움 주신분들에 대한 감사함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힘들었지만 한국의 불자들이 보내주시는 정진의 마음을 간직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포교에 전념하겠습니다."

8월부터 진행된 본지 나눔의 손잡기 '미얀마선원 산다마 스님 돕기' 캠페인에는 부산 여여선원 원장 정여 스님이 1억5천만원을 들여 법당을 임대해준 것을 비롯 당진 보덕사 등 4개 사찰과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한법회 등 3개 모임, 정안 스님 등 12명의 스님·83명의 불자들이 동참해 총 3천1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특히 청송 보리사 일진 스님이 1천만원을 보시한 것을 비롯해 정안 스님 등 비구니 스님 아홉명이 300만원을, 한마음



산다마 스님이 미얀마선원이 들어설 가회동 한옥 앞에서 법당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선원 대구지원 신법모임인 한법회에서 100만원을 보시했다. 이미 30만원 성금을 기탁한바 있는 이종명 보살은 최근 이사한다는 보도를 듣고, 이사비용으로 500만원을 보내왔고, 문영숙 보살도 200만원을 보내오는 등 두달 동안 불자들의 보시가 줄을 이었다.

10월 초 서울 가회동 한옥으로 이사 한 미얀마선원은 12월 개원 일정을 잡고, 현재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도움주신분

- 일진스님 1천만원 불일선원 10만원 만인스님 20만원 인철스님 50만원 정안스님 등 도반스님 9명 300만원 미타선원 10만원 고법사 30만원 동마사 10만원 선유화 30만원 대구 한마음선원 한법회 100만원 윤영석 100만원 이종명 500만원 김종남 문영숙 김원석 김유리 김유정 200만원 임종덕 30만원 박태원 100만원 김은희 100만원 이연희 1만 원 이준영 100만원 김유 200만원 정수원 100만원 윤영석 200만원 고경조 200만원 장한석 30만원 정영호 50만원 권경호 100만원 장성우 50만원 강부옥 100만원 이만재 50만원 정성우 50만원 양경철 100만원 강성진 30만원 정성원 30만원 선유화 200만원 이석진 1만 원 양유미 100만원 황정심 100만원 김덕화 100만원 양지숙 300만원 임완숙 100만원 도양숙 100만원 방미애 500만원 이종재 600만원 이석순 200만원 양승희 100만원 양경철 500만원 김희자 500만원 임종덕 200만원 이명호 300만원 이숙희 100만원 정재실 100만원 이경명 300만원 보덕사 500만원 손태원 200만원 김경숙 200만원 박건주 200만원 한정희 100만원 윤순화 30만원 최세훈 100만원 정보희 200만원 손문철 300만원 김희자 300만원 이현노 500만원 김경옥 300만원 김원우 500만원 김경숙 200만원 이연희 100만원 최정숙 500만원 민경희 200만원 박말수 500만원 강성진 600만원 이석순 200만원 임종덕 200만원 김경태 100만원 이경태 100만원 이연희 100만원 강성진 600만원 이석순 200만원 양경철 500만원 양승희 500만원 김희자 500만원 양지숙 500만원 이연희 100만원 이석순 500만원 이종하 500만원 김은숙 100만원 송정숙 300만원 조원조 300만원 옥정자 300만원 김경태 1만 5000원 나유미미타불 200원 총 3천100만원



전쟁 속의 어린 오드리 헵번 결에도 유니세프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참상 속에서 유니세프의 도움을 받고 자라 배우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오드리 헵번. 그 사랑은 평생 잊을 수 없었던 그녀에게 스스로 유니세프의 중요함을 직접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니세프의 친선대사가 된 그녀는 어린이가 있는 곳이면 전 세계 어디든 찾아가 지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안아주며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들의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에 활약을 펼쳤습니다.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어린시절 그녀처럼 어려움 속에 꿈을 키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우리가 기억 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눔이 있습니다

그늘속의 어린이들에게 식량과 식수를 전해주고 저해지역 긴급 구호활동을 펼치기 위한 유니세프의 유산증여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생명의 유산을 남겨주시고, 당신이 전해주시는 생명의 유산은 다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생명의 선물이 됩니다.

유니세프 유산증여 프로그램 문의 080-733-7979, 021723-8215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17-1 (우:110-034) e-mail: psr@unicef.or.kr



조계종 나눔축제 1천여명 참가 성황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및 자원봉사단체들이 '나눔 실천'을 위한 한자리에 모였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중앙신도회 등이 불교사회복지의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10월 29일 조계사 경내에서 펼친 '나눔으로 하나되는 대축제'가 바로 그것. 사회복지시설 및 국제구호단체, 사찰 및 종합학교 관계자 1천여명이 함께 한 이날 축제는 갈들이를 시작으로 자비마당과 어울마당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자비마당은 행사 참가단체 홍보 및 개별사업 안내, 장애체험 및 노인성 질병 예방캠페인 등으로 꾸며졌으며, 어울마당은 현충운동 및 북한장애우 휠체어 보내기 모금활동 등의 나눔운동과 사찰음식 맛보기, 불교음악 감상 등의 불교체험, 투호, 사방치기 등의 전통놀이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자원봉사단이 발마사지 시연을 하고 있다.

조계종은 이번 행사를 통해 불교계의 자원봉사와 후원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실질적인 자원봉사활동과 잠재적인 후원자를 개발, 관리해 새로운 불교사회복지문화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소아암 환아를 위한 음악회

니르바나 필하모닉오케스트라 11월1일 리틀엔젤스예술회관서

불교계 유일의 서양음악전문단체인 니르바나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11월 1일 리틀엔젤스예술회관에서 제2회 소아암환아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에서 니르바나 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실내악인 세레

나데를 연주했으며, 서연 스님(대구불교방송 예술단 솔리스트)의 플루트 독주, 김성희(재리터 체임버 앙상블 멤버)씨의 피아노 연주가 가을밤을 아름다운 선율로 수놓았다. 이어 유기준(kbs 국악관현악단 악장)씨의 대금 독주, 윤문숙(국립국악원 단원)씨의 해금 연주와 김해람(서울 우암초 6년) 어린이의 판소리, 은석초등학교 어린이합창단의 합창등으로 진행돼 소아암

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아와 가족, 후원자들이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니르바나 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강령진 단장은 "이번 음악회는 난치성 질환을 앓으면서 재정적 지원 없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아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며 "환자들이 60~70%에 이르는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아암환아돕기 계좌 국민은행: 852501-04-040046 예금주 니르바나(소아암음악회) 김원우 기자